

플라톤의 우주론과 기독교의 우주론

이경직

(천안대학교 / 기독교철학)

논문초록

본 논문의 목적은 기독교의 우주론 또는 세계창조론을 플라톤의 우주론과 비교함으로써 보다 분명하게 밝히고자 하는데 있다. 플라톤의 우주생성론에 따르면, 세계 제작자인 데미우르고스에게는 모델인 이데아와, 재료인 물질이 필요하다. 데미우르고스 자체는 대상을 모방할 수 있는 능력만 있으면 될 뿐이다. 자신에게 이데아가 없다는 점에서 데미우르고스는 전지하지 못하며, 재료인 물질의 제약을 받는다는 점에서 데미우르고스는 전능하지 못하다. 따라서 세상에 있는 악의 원인은 물질에게 있으며, 데미우르고스 자신에게 있지 않다. 데미우르고스는 그저 무능할 뿐이다.

이에 반해 기독교의 우주론은 전지전능한 하나님을 인정해야 하며, 따라서 이데아는 하나님의 관념으로, 물질은 없는 것으로 여겨져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구약성서 70인역에서 '창조하다'를 demiurgein으로 번역하지 않고 ktizein으로 번역한 이유도 밝혔다. 그리스의 우주론, 특히 플라톤의 우주론과 접하기 전까지 구약성서 저자들은 세계의 구체적 제작 과정에 대해 설명할 필요가 없었다는데 그 이유가 있었다. 중간기에 와서야 비로소 demiurgein이라는 동사와 'creatio ex nihilo'라는 개념이 등장한 것도 이와 관련하여 이해될 수 있다.

핵심 주제어: 우주론, 플라톤, 기독교의 우주론

I

인간은 현재만 보고 사는 존재가 아니다. 과거를 되돌아보며, 미래를 내다보며 사는 존재이다. 대부분의 경우 과거는 현재와 연결될 때 우리에게 의미를 갖는다. 미래 역시 그러하다. 이러한 맥락에 비추어 볼 때, 인간이 우주의 시작에 대해 관심을 갖는 것은 당연하다. 현재 인간이 살고 있는 집인 우주는 과거에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이 물음에 대한 답은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의 성격을 이해하는데 영향을 끼칠 것이다. 또한 그 우주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개인적 삶과 사회적 삶 모두—에 영향을 줄 것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볼 때, 우주의 시작에 대한 이야기는 지금 여기에 있는 우리의 이야기일 수 있다.

또한 인간이 생각하는데 꼭 필요한 범주 가운데 하나가 인과율(causality)이다. 사물의 본성과 기원을 알고 싶어 하는 것은 인간에게 타고난 것이다. 처음 사람들은 우주 속에 대책 없이 서 있었다. 우주의 법칙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원시인들은 나름대로의 경험을 통해 우주의 법칙을 이해했으며, 그것은 신화로 표현되었다. 원시인은 호기심이 많은 반면에 쉽게 믿는 경향을 지녔다. 그래서 신화에 만족할 수 있었다. 하지만 철학이 발전하면서 사람들은 신화에 만족할 수 없었다. 이성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체계를 원했다. 그래서 소위 자연과학이 발전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원시인이나 철학자 모두에게는 그들이 살고 있는 자연의 원인을 찾으려는 본능이 있다(Strachan, 1911: 226-227). 신학적으로 표현하자면,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감각(sensus divinitatis)이 있다.

세상 속에서 기독교인은 세상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 물음에 대한 답은 세계가 무엇이며, 하나님과 세계의 관계가 무엇인가에 대한 답에 달려 있다. 어떤 세계상을 갖느냐에 따라 인간의 삶의 의미와 방향에 대한

평가가 달라진다(Norris, 1965: 4).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우주’(kosmos)는 질서 있는 자연(nature, physis)을 뜻한다. 원래 physis라는 개념에는 질서 개념이 꼭 들어갈 필요가 없었다. physis라는 헬라이어 명사의 어원이 되는 phyô라는 헬라이어 동사에는 ‘식물이 자란다’는 뜻이 담겨 있다. 고대 그리스인이 보기에 식물이 자라는 일은 ‘저절로’(automaton) 자라는 일이었다. 누군가 계획하고 설계해서 의도를 가지고 만드는 인위적인 활동의 결과가 아니었다. 그저 봄이 되면 들판에 식물들이 싹을 틔우고 성장하는 활동이었다. 인간의 제작 행위(poiesis)와 관계없는 활동이었다. 그런데 식물이 언제나 꽃을 아름답게 피우고 좋은 결실을 맺는 것은 아니었다. 때로 꽃을 피우기도 전에 시들기도 하고 잎은 무성하지만 열매를 맺지 못하기도 하였다. 모든 것이 예정된 성장 프로그램에 따라 진행되는 것은 아니었다. 따라서 자연(physis) 개념에 확정된 질서라는 개념이 들어가야 하는 것은 아니었다. 우리 눈에 보기에 질서 있는 현상이 나타날지라도 그것은 필연적인 결과이기보다 우연의 결과이다.

그래서 자연에는 질서 있는 현상뿐 아니라 무질서한 현상도 들어간다. 헬라사람들은 무질서한 현상을 혼돈(chaos)로 여겼다. Chaos는 chaein이라는 헬라이어 동사에서 파생된 명사이다. chaein에는 ‘하품하다’의 의미가 들어 있다. 입을 벌리고 하품할 때 목구멍 안을 들여다보자. 그러면 깊이를 알 수 없는 어두움을 발견하게 된다. 어둡기 때문에 그 안에 어떤 질서가 있는지 알 수 없는 상태이다. 그래서 혼돈 개념에는 존재론적 의미와 더불어 인식론적 의미도 들어 있다. 혼돈은 실재 상태를 반영할 수 있다. 그래서 존재론적으로 사태 자체가 혼돈스럽게 있을 수 있다. 반면에 인식론적으로 볼 때, 혼돈은 인간의 인식 상태를 반영할 수 있다. 방 안이 말끔하게 정돈되어 있으며 모든 것이 질서 있게 놓여 있다 해도, 칠흑 같은 어두움이 있는 한 인간의 눈으로는 방 안의 질서를 볼 수 없다. 이 때 존재론적으로는 혼돈이 아

니지만 인식론적으로는 혼돈스러운 상태이다.

그래서 혼돈 개념과 관련해서 두 가지 가능성이 있다. 존재론적으로나 인식론적으로 모두 혼돈 상태가 있을 수 있다. 또한 존재론적으로 질서 있지만 인식론적으로는 혼돈에 빠진 상태가 있을 수 있다. 이후 전개되는 플라톤과 기독교의 우주론을 접할 때 이 점을 잊지 않도록 해야 한다. 플라톤의 제작이나 기독교의 창조를 혼돈에서 질서 있는 상태로 옮겨가는 것으로 이해한다면, 혼돈의 첫 번째 가능성에 따르는 경우 제작설명이나 창조설명 모두 우주생성론(cosmogony)이 될 것이다. 또한 혼돈의 두 번째 가능성에 따르는 경우 두 설명 모두 우주론이 될 것이다. 두 번째 가능성에 따르는 경우, 우주는 실제로 제작되거나 창조된 적이 없었으며 영원히 질서 있는 자연이 된다.

II

이 글의 일차 목적은 기독교의 창조설명을 이해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대표적인 헬라철학자 플라톤의 우주론을 먼저 소개하고, 그 우주론과의 차이를 부각시킴으로써 기독교의 창조설명의 독특성과 의미를 드러내고자 한다. 이러한 접근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의(定義) 개념과도 일치한다.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정의는 유(類)에 종차(種差)를 더한 것이다. 그래서 어떤 대상 x 가 무엇이라는 물음에 대해 올바르게 대답하려면, x 가 x 이외의 것들과 공통되게 지니는 특성들(類)을 밝히는 동시에 x 가 x 이외의 것들과 다른 점(種差)을 밝혀야 한다. 한 마디로 표현하자면, 같음과 다름을 밝혀야 온전한 개념 정의가 이루어진다. 이는 플라톤의 생각과도 일치한다. 그가 후기대화편 『정치기』(Politikos)에서 정치기를 정의하면서 사용했던 방법

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비기독교적 우주생성론의 대표적인 플라톤의 세계 제작 설명을 끌어들이기 때, 기독교의 창조설명을 보다 선명하게 이해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 같다.

많은 세계생성론 가운데 굳이 플라톤의 세계제작 설명을 끌어들이는 데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 초대교회 이후 중세 기독교 사상가들이 창조 교리 또는 창조 신학을 세워나갈 때 그들이 염두에 두고 있었던 것이 바로 플라톤의 세계제작 설명이었다. 플라톤의 우주생성론이 본격적으로 전개되는 대화편은 후기 대화편인 『티마이오스』(Timaios)이다. 뛰어난 기하학자이자 천문학자로 소개되는 티마이오스의 연설 형식으로 이루어진 이 대화편에는 기독교의 창조설명과 비슷한 점이 많았다. 그래서 중세 기독교 사상가들의 눈길을 끌지 않을 수 없었다. 특히 헬라 사람 가운데 세계를 만든 신에 대해 처음으로 말한 사람이 플라톤이었다. 이러한 까닭에, 이후 기독교인 가운데 플라톤을 특별 계시를 받지 못한 이방인 가운데 성경에 계시된 진리에 가장 가까이 접근한 지혜자로 여기는 사람도 나왔다(Weizaecker, 1964: 101-102). 그래서 칼키디우스(Calcidius)가 이 대화편을 라틴어로 번역하고, 헬레니즘 시대의 철학자 포세이도니오스(Phoseidonios)의 주석에 근거해서 『티마이오스 주석』을 썼다(Copleston, 1993: 651). 로마를 대표하는 철학자 키케로(Cicero)도 이 대화편을 라틴어로 번역했다. 플라톤의 『티마이오스』는 이러한 번역서들과 주석을 통해 중세 시대에도 읽혀졌다(Hoelschwerger, 1964: 186). 요하네스 필로포누스(Johannes Philoponus)가 기독교로 개종한 후, 기독교의 창조 설명을 가장 위협하던 아리스토텔레스를 물리칠 때 근거자료로 활용한 것이 바로 플라톤의 『티마이오스』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세계가 영원하다고 주장하여 창조 개념을 원천적으로 부정하는데 반해, 플라톤은 세계의 제작 과정을 시간적으로 설명함으로써 기독교의 창조 설명에 가까이 있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이다. 플라톤의 세계 제

작설명이 그에게 너무 깊은 인상을 남겼기 때문에, 그는 플라톤이 모세오경에서 이러한 지혜를 얻었다고 주장하기까지 했다(Copleston, 1993: 649).

9세기에 존 스코투스 에리우게나(John Scottus Eriugena)가 『티마이오스』를 정독했으며, 10-11세기 학자들은 보에티우스(A. Boethius)의 『철학의 위안』(De Consolatione Philosophiae)(III, 9)에 철학적으로 영향을 끼친 사람이 플라톤이라는 사실을 『티마이오스』를 통해 알게 되어, 『철학의 위안』이 기독교적 플라톤주의자가 쓴 글인지, 아니면 그냥 플라톤주의자가 쓴 글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생겨나게 되었다. 12세기 초엽에 북프랑스에서 플라톤주의 신학자들이 플라톤의 우주론과 『창세기』의 교리를 모순없이 연결하고자 시도했던 것도 이러한 맥락 속에 들어 있다. (대부분 출판되지 않았지만) 그들은 『티마이오스』에 대해 방대한 주석을 붙이는 작업을 했다(Hankins, 1987: 701).

플라톤의 우주론을 기독교의 우주론과 비교하는 일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의미를 줄 수 있다. 천동설이 지배하던 중세에 지동설을 주장하여 근대를 연 갈릴레이(Galilei)나 케플러(Kepler)도 플라톤의 우주론에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자연은 수로 쓰여진 책이다”는 신념 때문에 근대 과학자들은 플라톤주의자로 자처했다(Hoelschwerger, 1964: 187).

III

먼저 플라톤의 우주론을 살펴보기로 한다. 플라톤의 자연 설명은 주로 그의 후기 대화편 『티마이오스』에 담겨 있다. 이 대화편에서 플라톤은 모든 주제를 하나로 모아 가시계(可視界)의 구조와 특성을 일관되게 설명하려 한다. 그의 일차적 목적은 우주가 기계가 아니라 지성의 일을 반영하는 질서

라는 점을 보여주려는데 있다.

먼저 플라톤의 우주론의 의미를 이전 철학사에 비추어 살펴보자. 헬라 사람은 *chaos*가 신이 세계를 창조하기 이전에 이미 있었다고 여긴다. 이러한 혼돈에 질서를 부여해서 *kosmos*로 만들 때 질서 있는 우주가 생겨났다고 여겼다. 호메로스에서 헤로도토스에 이르기까지 헬라 사람들은 ‘자연’속에 초자연적 간섭이 있다고 믿었다. 핀다르(Pindar)의 세계관에 따르면, 인간이 이해하거나 통제할 수 없는 초자연적 원인 때문에 모든 일이 생긴다. 자연 질서가 무너졌기 때문에, 그는 거의 어떤 일이든 일어날 수 있다고 여긴다. 난류나 서리가 똑같이 일어날 수 있으며, 흉작과 흉수에서 전쟁과 내전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재앙이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핀다르는 『아홉 번째 전승가』에서 “그대는 왜 인간의 능력을, 지혜의 길을 무능하게 만드셨습니까?”라고 묻는다. 그러한 모든 현상을 이성적으로 전혀 설명할 수 없다는 확신이 묻어오는 물음이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신적 지혜를 지닌 예언자에게 가는 일밖에 할 수 없다(Vlastos, 1974: 27). 이러한 믿음은 기원전 5세기, 4세기까지 이어져 아리스토텔레스와 동시대인이었던 아테네 웅변가 리쿠르고스(Lycurgos)의 연설 『레오크라테스 반박』(Against Leocrates, 92)에 잘 나타나 있다. “신이 악인에게 첫 번째로 행하는 일은 그의 이성을 뒤집어 놓는 일이다(Vlastos, 1974: 29).” 이에 반해 헤로도토스(Herodotos)는 초자연적 간섭을 자연의 규칙적 질서의 예외로 여겼다. 그러나 핀다르나 헤로도토스 모두 자연세계에 초자연적 간섭이 있다고 인정했다. 인간의 이성이 파악할 수 없는 일이 있다고 여겼다. 그래서 학문 대신 신화가 그들의 세계에 자리 잡았다. 부자의 신 플루토스(Plutos)는 덕 있는 삶을 사는 사람에게 언제나 복을 주려 했다. 그 결과 인간이 이성을 통해 복된 삶을 지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다. 제우스는 이를 두려워해서 플루토스의 눈을 멀게 한다. 그래서 권선징악이 무너지고 인간은 초자연적 세계에 맹목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헤라클레이토스(Herakleitos)를 필두로 한 헬라 자연철학자들이 반기를 들었다. 그들은 일상인의 ‘자연’ 개념을 그대로 수용하면 초자연은 버렸다. 이제 모든 것은 자연의 영역에 속하게 되었다. 인간의 이성도 모든 것을 이해하고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자연은 질서 있는 우주(kosmos)가 되었다. 이러한 생각은 필연적 인과관계만 인정하는 데모크리토스(Demokritos)의 자연 철학에서 절정을 이룬다(Vlastos, 1974: 7). 이러한 자연철학에 따르면, 우리의 우주는 영원히 있었던 것이며, 누구의 작품이 아니다. 그렇다면 이 우주는 어떻게 이러한 모습으로 있게 되었는가? 자연철학자들의 표현을 빌리자면, 이 우주 안의 변화는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데모크리토스는 이를 잘 설명할 수 없었다. 헬레니즘 시대에 에피쿠로스가 상케일탈운동을 끌어들이는 것도 데모크리토스 우주론의 약점을 극복하기 위해서였다.

그런데 플라톤은 다시 초자연적 존재를 끌어들인다. 데미우르고스라는 세계제작자이다. 그는 자연 세계를 할 수 있는 한 좋게 만들려 한다. 인간의 행복을 질투하는 전통적인 헬라신과는 달리 좋은 의도를 지닌 신이기 때문이다. 그는 인간에게 불이라는 선물을 가져다 준 프로메테우스(Prometheus)와 같이 인간을 사랑하는 신이다. 따라서 인간이 자연의 주인이 될 가능성이 열린다(Vlastos, 1974: 7-4). 20세기 대표적인 서양고대철학 전문가인 블래스토스는 플라톤의 세계제작 설명을 우주생성론으로 받아들임으로써, 플라톤을 이신론자로 만든다. 세계제작과 관련해서 초자연적 개입을 인정한다는 점에서는 이전 자연철학에 대한 반동을 보이지만, 제작된 세계 안에는 초자연적 개입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블래스토스에 따르면, 플라톤은 초자연적 존재에 대한 믿음을 버리지 않으면서도 인간이 자연 속에서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다(Vlastos, 1974: 8).

하지만 플라톤의 세계설명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이기보다 비유적으로 이해해야 한다. 그래서 플라톤의 세계설명을 우주생성론 대신 우주론으로 여겨야 한다. 그러한 경우 블래스토스의 생각과는 달리 플라톤은 『티마이오스』에서 신이 세계를 만드는 일을 문자적 의미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따라서 플라톤은 신의 초자연적 개입을 인정하는 당대 사람들의 상식을 신화를 통해 인정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데모크리토스 등의 자연철학자들의 (자율적) 우주관을 받아들인다고 여길 수 있다.

IV

플라톤의 우주론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플라톤은 우주적 질서의 기본 원리들과 원리들 사이의 관계를 분석하는 일을 우주생성론의 형식을 빌어 설명한다. 기하학 수업시간에 선생이 (시간적 순서에 따라 이루어지는) 작도를 통해 도형들과 도형들의 관계를 설명하는 것과 같다. 이 경우 작도의 시간적 순서는 도형들의 논리적 순서나 위계질서와 일치하지 않는다. 달리 말하자면, 플라톤은 교육적 목적을 이루기 위해 우주론을 우주생성론의 표현을 빌려 설명하고 있다.

플라톤에 따르면, 세계를 이해하려면 적어도 세 가지 요소를 이해해야 한다. 이데아와 매체(필연, 수용자, 물질), 데미우르고스로 표현되는 정신이다.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는 이러한 세 가지 요소가 서로 작용한 결과이다. 하지만 여기서 이러한 상호작용을 구체적인 시간과 공간에서 이루어진 사건으로 여겨서는 안된다. 세계설명의 대상은 우리가 살고 있는 구체적인 우주이다. 세 가지 요소를 독립적으로 제시하는 것은 일종의 문학적 장치이다(Norris, 1965: 24). 플라톤에게는 지금 우주 질서가 기본 데이터로 주어졌

다. 이제 그는 지금 우리가 사는 우주에 질서가 있는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그는 그 이유를 지성과 이데아라는 두 원리에서 찾는다.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는 눈에 보이는 우주이며, 생성의 세계이다. 생성의 세계란 변화를 겪고 있는 세계라는 뜻이다. 하지만 우리는 변화하는 세계 안에서 변치 않는 구조와 질서를 볼 수 있다. 플라톤은 정신과 이데아 덕분에 그러한 구조와 질서가 있다고 여긴다(Norris, 1965: 25).

플라톤은 우주를 구(球)로 묘사한다. 우주의 중심에 지구가 고정되어 있다. 구의 바깥 면에 항성들이 박혀 있다. 방황하는(planomene) 운동을 하는 일부 행성(planets)을 제외하면 모든 천체는 규칙적인 원운동을 한다. 우주 안의 모든 변화는 전체 체계 안에서 이루어진다. 그런데 우리 눈에 방황하는 것처럼 보이는 행성마저도 같음과 다름의 원운동이 서로 작용한 결과이다. 우리 눈에 무질서하게 보이는 운동도 실상은 질서 있는 운동이다. 이는 흙, 물, 공기, 불이라는 4원소 사이의 운동에도 적용된다. 흙이 물로, 물이 공기로, 공기가 불로 변화하는 과정은 우리 눈에는 불규칙하게 보인다. 하지만 흙을 정사면체, 물을 정육면체, 공기를 정팔면체, 불을 정이십면체로 이해하는 경우 4원소 사이의 변화는 각 정다면체의 변들의 수의 관계로 파악될 수 있다. 다시 말하자면, 우주 안의 운동 변화에는 완전한 수학적 질서가 드러난다. 물론 수학적 질서가 이 우주 안에서 완전하게 드러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직각 부등변 삼각형을 기본 삼각형으로 지나는 정사면체에 해당하는 흙은 나머지 세 정다면체로 바뀔 수 없다. 나머지 세 정다면체의 기본 삼각형은 정삼각형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의 관찰에 따르면, 흙은 물로 변하며, 물도 다시 흙으로 변한다. 적어도 우리 눈에는 그렇게 보인다. 플라톤이 제시한 기하학적 설명은 이러한 현상을 모두 다 설명하지 못한다. 여기서 그의 수학적 설명은 한계에 부딪친다. 그래서 플라톤은 흙과 물 사이의 변화라는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기하학적 설명을 내놓는 사람은 자신의

적이 아니라 친구(philos)라고 밝힌다. 그래서 플라톤은 보다 많은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이론을 그렇지 못한 이론보다 더 개연적(eikos)이라고 여긴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우주론을 엄밀한 이야기(akribes logos) 대신 개연적 이야기(eikos mythos, eikos logos)라고 불렀다. 그리고 개연적이라는 표현에 대해 비교급을 사용한다. 이는 개연성에도 정도의 차이가 있음을 나타낸다. 개연성의 정도 차이는 얼마나 더 많은 현상을 설명하느냐에 달려 있다. 하지만 플라톤에 따르면, 궁극적으로 그 설명이 실재를 있는 그대로 설명하는지에 대한 확신은 사람에게 있을 수 없다.

그 원인은 무엇인가? 플라톤에 따르면, 우주 제작자 데미우르고스가 우주를 만들 때 사용해야만 하는(sine qua non) 재료에 그 원인이 있다. 왜 그러는가?

먼저 플라톤이 이해한 우주재료가 무엇인가라는 물음에 답해 보자. 그동안 학자들은 플라톤의 우주재료를 순수연장(延長)으로, 즉 기하학적 공간으로 이해할 것인가 아니면 아리스토텔레스의 물질로 이해할 것인가를 놓고 논란을 벌여 왔다. 기존의 해석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 해석에 따르면, 플라톤의 재료는 순수기하학적 공간이다. 두 번째 해석에 따르면, 플라톤의 재료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물질이다. 세 번째 해석에 따르면, 플라톤의 재료는 순수기하학적 공간이기도 하며 아리스토텔레스의 물질이기도 하다. 그런데 플라톤의 『티마이오스』를 살펴보면, 첫 번째 해석을 지지하는 구절과 두 번째 해석을 지지하는 구절이 나란히 나온다. 따라서 첫 번째 해석이나 두 번째 해석을 따르는 학자들은 반대편 구절을 어떤 방식으로든 설명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된다. 기존의 학자들이 내놓은 설명은 어딘가 억지 해석이라는 느낌을 준다. 그래서 세 번째 해석을 따르는 학자들이 나온다. 이 해석에 따르면, 플라톤 자신은 아직 자신의 재료가 무엇인지에 대해 확고한 입장을 갖고 있지 못하다.

세 번째 입장을 따르면서 플라톤을 변호하기 위한 시도 가운데 흥미로운 것은 슐츠의 해석이다. 그는 기존의 문제 제기 방식에 의문을 던진다. 플라톤의 재료가 순수기하학적 공간이나 아니면 아리스토텔레스의 물질이나는 문제 제기는 이미 특정의 물질관을 전제한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그의 테제에 따르면, 근대적 물질관 대신에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이 나온 이후의 현대의 물질관에서 출발하는 경우 플라톤의 재료 개념을 보다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다. 기존의 물질관에 따르면, 공간과는 달리 물질에는 본질적 속성이 있다. 불투과성(不透過性)과 관성(慣性)이 그 예이다. 따라서 이러한 물질관에 따라 플라톤의 재료 논의를 살펴보면, 플라톤이 자신의 재료 개념에 어떤 본질적 속성을 부여하느냐에 따라 플라톤의 재료가 순수기하학적 공간이나 아니면 물질이나에 대한 답이 주어진다. 플라톤이 우주 재료를 때로 순수기하학적 공간인 것처럼 묘사하는(예: en ho) 동시에 공간의 운동에 대해서도 언급한다. 또한 우주 재료를 황금에 비유해서 설명한다. 그래서 학자들은 플라톤이 혼선을 빚고 있다고 여겼다. 슐츠에 따르면, 플라톤은 여기서 모순을 범하지 않는다. 도리어 기존의 물질관을 이천 년 이상 뛰어넘어 현대의 물질관을 예견하고 있다. 모든 물리적 성질이 순수기하학적 성질에서 파생된 것이라고 여긴다. 현대 물리학에서 빛이 입자라는 가설과 파장이라는 가설이 모두 옳듯이, 플라톤의 우주 재료가 기하학적 공간인 동시에 물질이라는 생각은 옳다. 슐츠는 그렇게 주장한다(Schulz, 1962: 8-10).

그의 독창적인 주장은 많은 학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그러나 플라톤이 이천 년 이상을 미리 내다보았다는 주장은 일부 학자들로부터 시대착오적이라는 비난을 받기도 했다(Brisson, 1974: 252-253). 더 나아가서 플라톤은 자신의 논의에 모순이 있다는 점을 인정한다. 필자가 보기에 플라톤이 설명하는 우주 재료 개념에는 모순이 있다. 또한 플라톤도 이 점을 의식한다. 그가 자신의 설명을 그림직한 이야기(eikos logos)로 규정하는 까닭도 여기에 있다.

필자가 보기에, 플라톤이 서로 모순된 측면을 우주 재료 개념에 담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가 자연 세계를 설명할 때 끌어들이는 이데아론과 기하학적 설명이 서로 환원될 수 없다는데 있다(Lee, 2001). 이 테제에 대해서는 따로 지면을 할애해서 다룰 예정이다.

플라톤이 이해한 우주 재료를 (질적 규정인 이데아를 받아들이는) 순수 공간으로 이해하든, (기하학적 질서를 통해 이해해야 하는) 아리스토텔레스적 물질로 이해하든 간에, 이데아의 질서나 기하학적 질서는 순수공간이나 물질에 완전히 구현되지 못한다. 순수공간이나 물질안에 저항하는 힘 때문에 그러하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물질을 규정할 때 사용하는 헬라어는 hyle이다. hyle의 원 의미는 '목재'이다. 플라톤도 『티마이오스』에서 hyle를 목재라는 뜻으로 사용하고 있다. 그래서 목재를 예로 들어보자. 뛰어난 목공수라면 좋은 목재를 구하기 위해 방방곡곡을 다닐 것이다. 그는 그가 머리 속에 구상하고 있는 완성품과 관련해서 목재의 종음을 정할 것이다. 목재의 나무결 자체는 좋지도 나쁘지도 않다. 목재의 좋고 나쁨은 목재를 사용하여 완성품을 만들려는 제작자의 의도나 설계에 달려 있다. 그래서 똑같은 목재라도 문을 만드는 데는 나빠도 목공예품을 만드는 데는 좋을 수 있다. 그런데 목수가 목재를 사용해서 완성품을 만들 때 그는 자기 마음대로 제작할 수는 없다. 그는 나무결과 같은 목재의 독특한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나무결을 살리는 동시에 자신의 설계도 이루려고 노력해야 한다. 플라톤은 이러한 과정을 설득이라고 표현했다. 설득을 하려면 이야기를 듣는 사람의 지식수준 등을 고려해야 하듯이, 목수의 설득은 목재의 성질을 고려해야 한다. 그러나 플라톤에 따르면, 설득이 100퍼센트 성공하는 일은 없다. 설득은 언제나 한계에 부딪친다. 목재에 아무런 성질이 없었다면, 목수는 자신의 아이디어를 완전히 구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일은 현실에서 일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때로 목수는 강제라는 방법을

사용하기도 한다. 목재의 나무결을 때로 무시하면서 자신의 의도를 이루려 하기도 한다. 하지만 강제만 사용하는 경우 결과가 나쁘게 나올 수 있다. 목재는 완성품이 되기 전에 쪼개져 버리고 말 것이다. 그래서 설득과 강제는 두 방법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잘 섞어 쓰느냐에 따라 훌륭한 제작자가 될 것이다.

그래서 플라톤의 우주에는 불완전한 요소가 언제나 남을 수밖에 없다. 이러한 불완전의 책임은 데미우르고스에게 있지 않다. 데미우르고스는 그 점에 있어서는 무능하기 때문이다. 우주를 완전하게 만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계를 불완전하게 만들었다면, 데미우르고스에게 책임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러한 전능성은 플라톤의 데미우르고스에게 없다. 그러한 점에서 볼 때, 플라톤에게는 기독교의 오랜 숙제인 신정론(神正論, theodicy)의 문제가 없다. 세상에 악이 있는 이유를 신에게 찾을 필요가 없다.

우주의 재료만 플라톤의 데미우르고스를 제약하는 것이 아니다. 플라톤의 이데아도 데미우르고스를 제약한다. 세계 제작의 설계도가 되는 이데아는 데미우르고스 안에 있지 않다. 이데아는 데미우르고스와 독립적으로 있다. 그래서 데미우르고스는 세계를 제작할 때 모델인 이데아를 보아야 한다. 플라톤은 데미우르고스에게 두 가지 능력을 부여한다. (1) 데미우르고스는 모방에 뛰어나다. (2) 데미우르고스는 좋다. (1)의 능력 덕분에 데미우르고스는 자신의 모델을 가능한 한 잘 모방해낸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는 완전한 세계는 아니지만, 가능세계 가운데 최선의 세계이다. (2)의 능력 덕분에 데미우르고스는 이데아를 모델로 삼는다. 데미우르고스가 인간을 질투하여 인간에게 불을 가져다 준 프로메테우스를 처벌하는 전통적인 헬라신들과 같았다면, 그는 이데아를 모델로 삼기보다 변하기 쉬운 생성물을 모델로 삼았을 것이다(Tim 29c). 그러한 점에서 볼 때 플라톤의 신관은 당시에 매우 혁명적인 신관이다. 만일 데미우르고스가 (1)의 능력을 지

니면서 (2)의 성품을 지니지 않는다면, 그가 만든 세계는 최악이었을 것이다. 플라톤은 『티마이오스』 서두에서 그러한 예로 당대 소피스트들을 들었다. (1)의 능력마저 없었더라면 소피스트들은 그렇게까지 큰 해악을 끼치지 않았을 것이다. 소피스트들의 문제는 뛰어난 모방능력에 있지 않고 모델을 잘못 선택한 데 있었다. 데미우르고스가 비록 (1)과 (2) 능력을 모두 갖추었지만, 자신 속에 우주 설계도를 지니지 못한다는 점에 있어서 불완전한 수밖에 없다. 그는 전지한 존재가 아닌 셈이다.

이제 이렇게 만들어진 우주에는 두 가지 종류의 운동이 나타난다. 헬라 사람들이 완전한 운동이라고 여긴 원운동이 하늘에서 이루어진다. 또한 헬라 사람들이 불완전한 운동으로 여긴 직선운동이 땅에서 이루어진다. 직선운동은 좌(左), 우(右), 전(前), 후(後), 상(上), 하(下)라는 여섯 가지 운동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생각은 아리스토텔레스에게서 월상세계와 월하세계의 구분으로 나타나며, 이후 뉴턴의 만유인력법칙 발견 때까지 우주론을 지배하게 된다. 뉴턴은 달 위의 세계나 달 아래의 세계 모두 인력법칙의 지배를 받는다는 사실을 밝혀내었다. 직선운동이 나타나는 지상의 변화는 원운동이 나타나는 천상의 변화보다 열등한 위치에 있다. 직선운동은 불규칙 운동을 대변하며, 원운동은 이성적이고 규칙적인 운동을 대변한다. 천체들의 원운동은 서로 비례와 조화 속에 이루어진다. 그래서 천체의 운동은 일종의 우주적 교향악인 셈이다. 모든 천체 운동은 모든 천체의 운동이 한 점에서 시작하는 대원년(大元年)을 기준으로 서로 비례 관계에 있다. 땅 위에 사는 인간의 신체 부위 가운데 머리를 둥글게 만들고 하늘에 가깝게 둔 이유는 이성의 활동이 이루어지는 곳이 머리이기 때문이다. 불멸하는 인간 영혼의 이성적 부분은 천체의 완벽하게 조화로운 회전을 보고(theoria) 생각함으로써 자신의 삶을 신적 이성의 운동의 리듬에 맞춘다. 플라톤은 '신적(theion)'이라는 용어를 '이성적'으로 이해한다. 그래서 이성적인 원운동을 하는 천체

들을 신들이라고 부른다. 또한 원운동을 하는 우주를 이성적 영혼이 들어 있는 생물(joion)이라고 부른다(Tim 69c)(Norris, 1965: 22). 그래서 결국 인간이 천체를 보는 목적은 신과 같이 되려는데(homoion to theo) 있다. 하늘을 연구하는 천문학자 티마이오스를 플라톤의 우주론을 제시하는 등장인물로 내놓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결국 플라톤의 우주론을 이성적이고 교육받은 사람을 위한 신학으로 여길 수 있다(Norris, 1965: 42). 우주 속에 있는 수학적 질서를 봄(theoria)으로써 신과 하나가 되려는 피타고라스적 전통이 플라톤의 우주론에 잘 나타나 있다.

플라톤의 우주론을 간략하게 정리해보자. 플라톤의 우주제작자 데미우르고스는 전지한 신도 전능한 신도 아니다. 그의 머리에는 우주 설계도가 없으며, 그에게는 우주 재료의 저항을 완전히 이겨낼 능력도 없기 때문이다. 데미우르고스에게는 우주 설계도가 외부에서 주어진다.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좋은 모방품을 만들어내는 과제가 그에게 있을 뿐이다. 이러한 점에서 있어서 플라톤의 데미우르고스는 철저하게 인간적이다. 그는 창조자가 아니라 모방자에 불과하다. 이러한 신관은 헬라 사람들의 인간중심적 사고와 밀접히 연결된다. 또한 데미우르고스는 전능하지 않다. 그래서 세상에 있는 불완전은 데미우르고스의 책임이 아니다. 불완전의 책임은 우주 재료 안에 본래부터 있는 성질에 있다. 데미우르고스는 그 성질을 만들지 않았다. 따라서 데미우르고스는 신정론의 문제를 피해간다. 하지만 재료의 저항을 완전히 이겨내지 못한다는 점에서는 무능한 신이라는 평가를 피할 수 없다.

V

이제 기독교의 우주론을 살펴보도록 하자. 기독교의 우주론을 살펴려면

먼저 『창세기』 앞부분으로 달려가야 한다. 창세기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1절)는 선포로 시작된다. 이어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2절)는 말 씀이 나온다. 창세기 1장 1절과 2절의 관계에 대해 많은 학자들이 논란을 벌였다. 해석하기 매우 어려운 구절 가운데 하나님이 분명하다. 기존의 해석은 대체로 다음과 같이 갈라진다. 물론 다른 해석의 가능성도 열려 있다. (1) 1절에서 이미 창조가 완료되었다. 따라서 2절의 혼돈 상태는 하나님의 창조 결과물이다. (2) 1절은 창조 전체를 요약하는 제목이다. 2절의 혼돈 상태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기 전의 상태이다. (1)의 해석을 따르는 경우, 하나님은 2단계를 거쳐서 창조하신 셈이 된다. 먼저 없는 것(nihil)에서 혼돈 상태를 창조하시고, 혼돈 상태에서 다시 질서 있는 우주를 창조하신 셈이 된다. (2)의 해석을 따르는 경우,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이미 혼돈상태로 있는 물질이 있었다. 이러한 경우 하나님의 창조행위는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만들어내는 행위가 아니다. 도리어 무질서한 혼돈에 질서를 부여하시는 행위가 된다. 구약에서 ‘창조하다’는 동사 bara는 과거에 없었던 것을 새롭게 창조할 때 쓰이지 않는다(시102:18, 104:30, 사42:5, 45:7-8, 암4:13)(Stek, 1976: 208). 또한 창조를 표현하는 bara 외의 동사들은 이미 있는 것을 통한 창조를 나타낸다(창2:7)(Stek, 1976: 210). 또한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나누실 때 사용하시는(4절) ‘나누다’ 동사는 ‘언약을 맺다’에 사용된다. 구약에서 는 희생물을 반쪽으로 쪼개어 그 사이를 지나가면서 언약을 했다.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희생물처럼 쪼개질 것이라는 무서운 경고를 실감하기 위해서였다.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나누시는 행위가 이미 있는 재료를 쪼개는 행위라는 것이다. 이러한 정황증거들은 (2)의 해석을 지지하는 것 같다. 그런 경우 기독교의 창조는 플라톤의 데미우르코스의 세계제작과 그리 달라 보이지 않는다. 기존의 재료를 사용하여 질서 있는 완성품을 만들어내는 일

이 되기 때문이다. 이는 기독교가 전통적으로 받아들인 무로부터의 창조(creatio ex nihil)과 맞지 않는다. 또한 하나님께서 전능하시다는 고백과도 맞지 않는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1)의 해석이 남는다. 실제로 교회사에서 많은 신학자들이 이러한 노선을 따랐다. 그렇다면 1절의 창조는 혼돈의 창조를 가리키는 것인가? 아니면 1절에서는 창조 전체를 요약하고, 혼돈의 창조는 전체된 것인가? 후자라면, 왜 창세기는 혼돈의 창조에 대해 침묵하는가?

우리는 먼저 무로부터의 창조라는 생각을 성경에서 찾을 수 있는지 물어보아야 한다. 구약 성경에는 무로부터의 창조라는 생각이 나타나지 않는다. 구약 외경인 마키비2서 7장 28절에 처음으로 무로부터의 창조라는 개념이 나타난다(이경직, 2001: 337-360). 무로부터 창조하실 수 있는 하나님만이 순교자의 몸을 부활시키실 수 있다고 여겼기 때문이다(이경직, 2001: 346). 그렇다면 구약은 왜 무로부터의 창조라는 개념을 밝히지 않는가?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창조 행위는 구체적인 창조과정보다는 왕으로서 창조하시는 의지와 명령에 초점을 두었다. 온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시 33:6, 9, 시148:5-6, 사48:13), 즉 왕명을 통해 세계 창조를 선언하셨다. 구약에서 사용되는 언어는 바람이 만들어지는 중간 단계의 매체에 대해 언급하지 않는다. 초점은 사람의 기원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표현하는데 있다(Stek, 1976: 222). 명령의 말씀으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창조 개념 자체가 창조의 효과를 즉각 낸다는 뜻은 아니다. 비, 눈, 서리, 녹입은 동일한 하나님의 명령으로 이루어졌지만 창조의 효과가 바로 나오지 않기 때문이다(욥 37:6, 시147:15-18). 구약은 창조의 시간, 사용된 매개체, 그 과정에 대해 특별히 언급하지 않는다. 구약 기자의 관심은 온 우주 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창조의 말씀과 다스리심의 위엄과 능력에 있다. 시편의 초점은 하나님의 말씀이 전능하게 이루어지는 효력에 있으며, 그 이루어짐이 즉각적이라는데

있지 않다. 창조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이루어진다. 과정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다(Stek, 1976: 225-228). 그래서 70인역은 구체적 창조과정과 관련되는 *deniourgein*이라는 동사보다는 왕의 명령과 의지에 관련되는 *ktijein*이라는 동사를 사용했다.

그런데 고대 헬라의 우주생성론은, 특히 플라톤의 우주생성론은 세계의 생성과정에 관심을 두고 있었다. 또한 중간기와 초대 기독교 공동체는 고대 헬라의 우주생성론, 특히 플라톤의 우주생성론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던 헬레니즘 영향권 아래에 있었다. 따라서 신구약중간기와 초대 기독교 공동체는 창조과정에 대해 대답해야 할 필요성에 직면했을 것이다. 그래서 구약 성경의 70인역에서 창조주 하나님과 관련해서 등장하지 않는 데미우르고스라는 표현이 로마의 클레멘스(Klemens)를 비롯한 여러 초대 교부들의 글에 나타나게 되었다. 또한 무로부터의 창조라는 표현이 마카비2서와 히브리서에 나타나게 되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한 가지 문제가 생겼다. 데미우르고스라는 표현을 창조주 하나님에게 붙였을 때, 고대 헬라 전통에 있었던 사람들은 창조주 하나님을 플라톤의 데미우르고스와 같게 여기기 쉬웠다. 그래서 기독교의 창조주 하나님을 플라톤의 데미우르고스와 구별해야 할 필요가 있었다. 무로부터의 창조는 바로 여기에서 나온 생각이다. 창조주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재료의 제약을 받으실 수 없다. 그래서 기독교의 우주론에 따르면, 물질이란 없다. 그런데 서양 고대인들은 ‘...로부터’라는 표현에 익숙해 있었다. 그래서 ‘없는 것으로부터’라는 표현을 통해 기독교의 창조주에게는 재료가 따로 없었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무로부터의 창조’는 ‘창조에 제약을 주는 재료가 없는 창조’, 즉 ‘완전한 창조’를 뜻한다. 창조 과정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는 헬라 전통의 사람들에게 기독교는 ‘무로부터의 창조’를 통해 대답을 주었다. 이는 구약 성경 기자들이 생각해보지 않았던 대답이다. 따라서 ‘무로부터의 창조’(creatio ex nihilo)는 헬라 철학

에 대항하는 일종의 조직신학적, 변증적 작업일 수 있다.

그렇다면, 플라톤의 데미우르고스가 세계를 만들 때 모델로 사용하는 이데아는 기독교에서 어떤 곳에 자리 잡는가? 이데아를 창조주 밖에 있는 것으로 놓는다면, 창조주는 전지한 존재가 되지 못할 것이다. 그저 모방능력만 갖고 있는 존재가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왕이라고 믿고 고백하는 기독교 공동체는 이러한 사태를 버려둘 수 없었다. 그래서 이데아를 창조주의 머리에 자리 잡은 관념(*idea*)으로 삼는다. 유대인 기독교 철학자 필론(*Philon*)과 그 이후 중기 플라톤주의자들에서 이러한 작업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그들은 영원한 이데아는 하나님의 마음에 영원히 있는 관념이라고 주장한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러한 생각을 그의 인식론의 초점으로 삼았다(*Nash, 1984: 40*).

그런데 구약의 강조에 따라 창조과정보다 창조의 의지와 법령에 초점을 두는 경우, 이신론의 위험성을 벗어날 수 있다. 이신론은 이렇게 전개된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태초에 우주를 완전하게 만드셨다. 그리고 창조된 우주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으셨다. 창조된 우주는 하나님께서 만드실 수 있는 우주 가운데 가장 좋은 우주이다. 태초에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는 더 이상 하실 일이 없다. 너무나 완전한 우주를 만드셨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우주의 진행과정에 초자연적으로 개입하신다면 개선보다는 개악이 이루어질 것이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그러한 일을 원하실 리 없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우주를 완전하게 만드시고, 우주가 자율적으로 굴러가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질서를 지키도록 하셨다. 따라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주의 과정에 초자연적으로 개입해달라고 기도하는 일은 의미 없는 일이다. 이러한 논증을 통해 이신론자는 지금 이곳에서 우리와 인격적으로 교제 하시며 우주와 역사를 주관해 가시는 하나님을 부정한다. 조직신학적 용어를 사용하자면, 이신론자는 창조는 인정하지만 섭리는 인정하지 않는다.

이신론의 잘못된 주장을 어떻게 물리칠 수 있는가? 이신론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태초에 우주의 모든 것을 다 만들어놓으셨다는 전제를 한다. 그런데 *ktijein*이라는 동사는 예를 들어 성을 쌓도록 왕이 명령하는 경우에 사용되는 용어이다. 왕이 법령을 내렸을 때 시간적으로 보면 아직 그 성은 세워지지 않았다. 하지만 히브리인들이 보기에 그 성이 세워졌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그 성을 세우라는 왕의 의지와 법령이 중요하다. 왕이 명령했기 때문에 그 성은 세워질 수밖에 없다. 히브리인들에게는 성을 세우는 과정보다 성을 세워야겠다는 왕의 의지와 법령이 중요하다.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태초에 우주를 창조하시겠다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구약성경 기자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주를 창조하셨다고 기록한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라는 시간의 흐름에서 이루어져 간다. 그 일을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그분의 신실하신 명령과 언약을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다.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이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류의 구원을 이루시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올 것도 모두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예비하시고 법령으로 선포하신 것이다. 그 구체적인 과정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본다. 이렇게 이해하는 경우, 이신론과 같은 논증이 나올 수 없다. 따라서 창조와 섭리라는 개념을 날카롭게 구분하기 어려워 보인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우주를 창조하시며 구체적인 과정을 통해 창조를 이루어 가시는 분으로 이해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서 존 스택 교수는 흥미로운 제안을 한다. 창세기 1장1절-2장 3절의 설명을 인간이 창조를 이해할 수 있도록 가시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보자는 제안이다. 그는 성경의 창조설명을 서술적으로 표현된 신조로 받아들인다. 그는 이 구절을 천상어전회의를 기록한 것으로 받아들인다. 그래서 창세기 2장 4절 이후를 위한 서문으로 받아들인다(Stek, 1976: 251; 255-256). 아우구스티누스도 6일간의 창조를 비유적 의미로 받아들인다(이경

직, 2000). 그는 창조의 시기가 영원 속에, 즉 시간의 밖에 있다고 여긴다. 시간이란 물체의 세계가 창조되었을 때에야 비로소 있기 때문이다. 그에 따르면, 하나님은 모든 시간을 벗어나 있다(Augustinus, 11권 13장 16절). 아우구스티누스는 물질도 창조되었다고 말한다. 하지만 그에 따르면, 물질 창조는 시간 밖에서 한꺼번에 이루어진다. 창조와 더불어 시간이 생겼을 때에야 비로소 하나씩 차례로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그 때야 비로소 선후(先後) 관계가 나타나기 때문이다. '이전'과 '이후'는 시간의 기본개념이다. 아우구스티누스가 6일에 걸친 창조설명을 비유적으로 이해하는 까닭도 여기에 있다 (Hoelschwerger, 1964: 428).

존 스택 교수의 테제를 뒷받침하는 것으로 보이는 구절을 열왕기상 22장 11-24절에서 찾을 수 있다. 누가 참된 선지자냐는 물음이 이 본문에 나타난다. 시드기야가 거짓 선지자이며, 미가야가 참된 선지자인지 판가름하는 기준은 누가 천상어전회의에 참석하여 우주의 왕되신 하나님께서 천사들과 함께 의논하고 결정하여 명령을 공포하는 것을 보고 기록했느냐에 달려 있다. 하나님께서 시드기야에게 거짓 영을 보내어 거짓 예언을 하도록 하시겠다는 뜻을 밝히신 장면까지 미가야는 보았다. 참된 선지자는 하나님의 천상어전회의에 참석하여 하나님의 결정을 보고 하나님의 명령인 말씀을 기록하는 일종의 서기관이다. 그런데 성경은 선지자 가운데 최고 선지자를 모세라고 표현한다. 따라서 모세가 기록한 모세오경의 첫 번째 책 『창세기』의 첫머리를 모세의 천상어전회의 기록으로 여길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존 스택 교수의 제안을 받아들이는 경우, 우리는 6일간의 창조를 인간이 이해하는 시간 속에서 이루어진 과정으로 여기기보다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시간 속에 전개되는 하나님의 창조 계획으로 여겨야 할 것 같다. 신학을 아직 잘 모르는 필자로서는 존 스택 교수의 제안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할지 아직 모르겠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구약 기자

들이 창조의 과정에 대해서는 관심을 두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만일 구약 기자들이 헬라 전통의 도전을 받았다면, 창세기에는 창조과정의 보다 분명하게 나타났을지 모른다. 6일간의 창조과정에 대해서는 일단 물음표로 남겨 두는 편이 나아 보인다.

그보다 우리는 무로부터의 창조가 하나님의 전지전능성을 변증하기 위한 설명이라는 사실을 찾는데 만족해야 할 것 같다. 기독교의 하나님은 플라톤의 데미우르고스와는 달리 모방하는 신이 아니다. 창조하시는 신이다. 플라톤에게서는 데미우르고스나 인간 모두 완전한 질서를 모방하려고 애쓰는 존재이다. 하지만 기독교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질서를 모방하고 질서의 창조주 하나님 자신을 닮아가려고 애써야 하는 것은 인간이다. 플라톤과 달리 기독교에서는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 인간 사이에는 넘을 수 없는 경계선이 놓여 있다. 그래서 기독교의 하나님은 인간중심적 신이 아니다. 플라톤에 따르면, 인간의 구원(행복)은 우주에 나타난 이성적 질서를 보고 닮는데 있다. 그래서 그에게는 주지주의적 성격이 강하게 나타난다. 하지만 기독교에 따르면, 우주의 왕 되신 하나님께 순종하며 그분의 명령을 순종을 통해 이 땅에 이루어갈 때 인간은 행복을 누릴 수 있다. 달리 말하자면, 하나님의 창조 활동에 참여할 때, 하나님의 창조활동을 제대로 모방할 때 인간은 행복한 존재가 된다.

VI

이 글에서는 기독교의 우주론을 헬라 우주론의 대표적인 플라톤의 우주론과 비교해보았다. 이를 통해 기독교 우주론의 근본적인 생각인 '무로부터의 창조'가 나온 배경을 이해했다. 또한 구약 성경 저자의 관심이 헬라 저자

들의 관심과는 다르다는 점을 지적했다. 헬라 저자들의 관심은, 예를 들어 플라톤의 관심은 우주가 만들어지는 과정에 있다. 이와는 달리 구약 성경 저자의 관심은 우주가 있도록 하는 창조주 하나님의 의지와 명령에 있다. 이 점을 이해할 때, 이신론에 빠지는 잘못을 피할 수 있음을 지적했다. 이신론은 히브리인의 관심과 세계관을 이해하지 못하고 헬라적 전통의 생각을 구약에 뒤집어씌울 때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잘못 가운데 하나이다. 이러한 우주론의 차이는 구원론의 차이로도 나타난다. 플라톤의 경우 인간의 구원(행복)은 하늘에 나타난 질서를 봄으로써 개인 영혼과 우주 영혼의 일치를 이루는데 있다. 매우 주지주의적인 구원이다. 이와는 달리 기독교의 구원(행복)은 우주의 왕 되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의 창조명령에 순종하여 그분의 손과 발이 되어 역사 속에 전개되는 창조활동에 참여하는데 있다. 이는 율법을 준수하는 것이다. 즉 우주의 질서에 따라 사는 것이다. 하나님 안에서 법과 창조는 연결되기 때문이다(Braun, 1999: 12-13).

다른 이교도 철학자에 비해 플라톤은 진실에 더 가까이 갔다. 사물 자체가 사물의 본성을 결정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다. 오늘날 자연주의에 따르면, 자연 안에 자연법이 들어 있다. 이와는 달리 플라톤은 사물에 질서를 주는 것을 보려면 사물 이외의 것을 보아야 한다는 점을 알았다. 하지만 그도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에 구조를 부여하시고 지금도 만물을 유지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신 하나님의 강력하신 말씀임을 볼 수 없었다. 사과나무는 사과나무에 내재하는 생물학적 법칙 덕분에 존재하지 않는다. 사과나무라는 영원한 이데아 또는 관념 때문에 존재하는 것도 아니다. 만물을 창조하시고 유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덕분에 존재한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물을 창조의 법칙(말씀)에 따라 종류대로 창조하시고 유지하신다. 플라톤의 이데아는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성경적 개념과 크게 다르다. 플라톤의 이데아는 모델일 뿐이다. 이와는 달리, 하나님의 말씀과 명

령은 만물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지탱하는 힘이다. 사과나무는 묘목에서 큰 나무로 자랄 때, 나무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다. 또한 말씀하시고 명령하시는 분은 주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말씀의 전능한 능력 앞에 모든 창조물이 두려워 떨게 된다. 하지만 플라톤의 이데아 앞에서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떨지 않는다. 이데아는 지적 명상(theoria)의 대상일 뿐이다. 이와는 달리, 하나님의 말씀은 경외의 대상이며, 우리 마음에 감정을 일으킨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 지경의로, 전인격적으로 반응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볼 때, 플라톤의 인식론은 주지주의적이다. 지성만이 구원에 이르는 길이다. 플라톤은 감각을 믿지 않는다. 이와는 달리 기독교는 인간의 체험을 무시하지 않는다. 인간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느끼는 감정을 무시하지 않는다(Kok, 1998: 45-46; 48).

참고문헌

- 이경직 (2000), “시간의 창조 플라톤과 아우구스티누스”, 『신앙과 학문』 5(4), 43-60.
- 이경직 (2001), “초대 기독교와 데미우르고스”, 『역사신학논총』 3.
- Augustinus, *The Confessions*, 성한용 역 (2003), 『성 어거스틴의 고백록』,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 Brisson, Luc (1974), *Le Même et l'Autre dans la Structure Ontologique du Timée de Platon*, Paris.
- Brown, William P. (1999), *The Ethos of the Cosmos: The Genesis of Moral Imagination in the Bible*, Grand Rapids/Cambridge: Eerdmans.
- Copleston, Frederick S.J. (1993), *A History of Philosophy: Greece and Rome*, 김보현 역(1998), 『그리스 로마 철학사』, 서울: 철학과 현실사.
- Hankins, J. (1987), “Plato in the Middle Ages”, in: Strayer, J. R. (ed.), *Dictionary of the Middle Ages*, vol. 9, New York.
- Hoelshwenger, Johannes(1964), *Die Geschichte des Philosophie I*, 강성위 역

- (1983), 『서양철학사』 상권: 고대와 중세, 서울: 이문출판사.
- Kok, John H. (1998), *Patterns of the Western Mind. A Reformed Christian Perspective*, Sioux Center: Dordt College Press.
- Lee, Kyung Jik (2001), *Platons Raumbegriff*, Würzburg: Königshausen & Neumann.
- Nash, Ronald H. (1984), *Christianity and the Hellenistic World*, Grand Rapids: Zondervan.
- Norris, Jr. Richard A. (1965), *God & World in Early Christian Theology*, New York: The Seabury Press.
- Schulz (1962), *Das Problem der Materie in Platons Timaios*, 이경직 역
(2000), 『플라톤의 물질문제』, 서울: 서광사.
- Strachan, J. (1911), "Creation", in: Hastings, James (ed.), *Encyclopaedia of Religion and Ethics*, vol. IV, Edinburgh: T. & T. Clark.
- Stek, John H. (1976), *The Old Testament*, 류호준 편역(2000), 『구약신학. 본문과 해석』, 서울: 솔로몬.
- Vlastos, Gregory (1974), *Plato's Universe*, 이경직 역(1998), 『플라톤의 우주』, 서울: 서광사.
- Weizaecker, C. F. v. (1964), *The Limit of sciences*, 대우학술총서 번역(1996), 『과학의 한계. 창조와 우주 생성, 두 개념의 역사』, 서울: 민음사.

ABSTRACT

Platonic and Christian Cosmologies

Kyung-Jik Lee

This article wants to show the uniqueness of the Christian cosmology compared with Platonic cosmology which is representative of Greek cosmologies. It shows the background of the essential concept of the Christian cosmology, namely 'creatio ex nihilo'. The reason why such concept does not appear explicitly in the Old Testament lies in that the interest of the authors of the Old Testament is different from that of the Greek authors. The interest of the Greek thinkers lies in the process or the structure of the universe, namely orderly nature. Their chief problem is: How does the order of this universe come? In the contrast, the authors of the Old Testament stress the will and the order of the God, the Creator of this universe. They are not interested in the actual ordering process of this world, but in the authority and the power of the legislator of the order of the universe.

This shows how insensible the propounders of the deism are. The deism results from the misunderstanding of the concern and the worldview of the Hebrew, namely from the false

mixture of the thoughts of the Old Testament with Greek ways of the thoughts. The difference in the soteriology corresponds with that in the cosmology: the Greek, especially Platonic salvation is intellectualistic, but the Christian salvation is personal: Man should recognize the God as the Lord of the universe and obey Him.

Key words: Platonic cosmology, Christian cosmology, deism